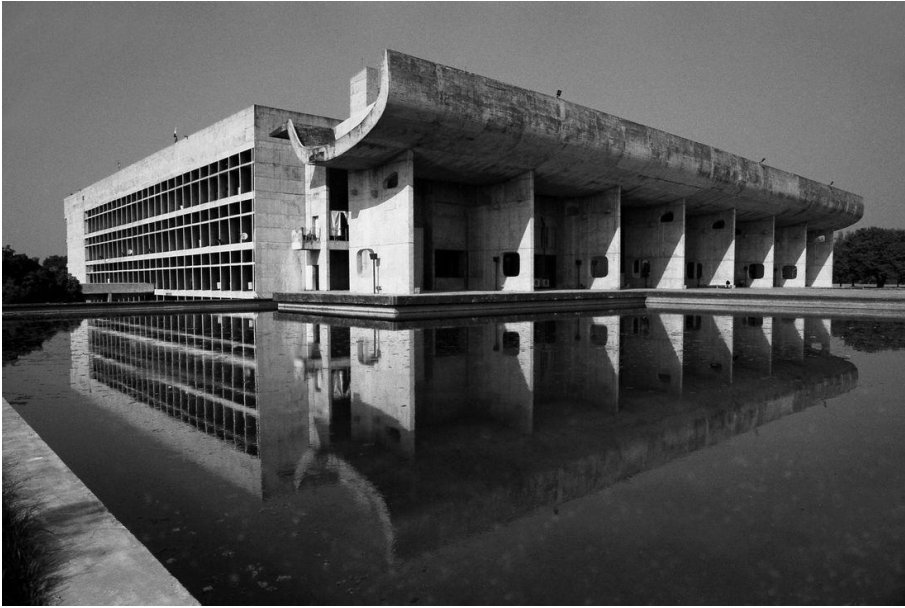


인도주의적 디자인을 선보인 피에르 잔느레, 르 코르뷔지에와 만났을 때

11 April, 2016 | 김미주 기자



찬디가르 국회의사당 전경, 인도 2008, Photo by Ben Lepley (출처: 국제갤러리)

매년 디자인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 국제갤러리에서 오는 2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스위스 출신의 모더니스트이자 건축가 겸 디자이너인 피에르 잔느레의 <르 코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 인도 찬디가르 1655~66>를 개최한다.

피에르 잔느레는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서 진보적 건축철학을 추구해온 디자이너로 실용적인 건축디자인 외 빈민 도시개발 및 회복을 위한 복원적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국제갤러리 2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피에르 잔느레의 오랜 협업가이자 사촌이었던 현대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와 공동으로 진행한 인도의 행정구역 도시, 찬디가르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일련의 디자이너 작업들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피에르 잔느레의 인도주의적 접근이 디자인과 진보적 건축사상에 따른 도시의 삶과 성장을 반추하는 모더니티의 총체를 발견할 기회가 될지 기대를 모은다.

전시일정: 4월 26일~ 5월 29일

장소 : 국제갤러리 2관 (K2)